

평택 3·1 독립만세운동 제99주년 기념식

2018년 3월 9일(금요일) 오전 11시
평택호관광단지 현충탑 광장

주최/주관_ 평택3·1독립운동선양회

후 원_ 평택시·평택시의회·평택문화원·t-broad 기념방송

독립 선언서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려 가지게 하는 바이다.

5천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여 이를 선언함이며, 2천만 민중의 충성을 합하여 이를 두루 펴서 밝힘이며, 영원히 한결같은 민족의 자유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가 가진 양심의 발로에 뿌리 박은 세계 개조의 큰 기회와 시운에 맞추어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이 문제를 내세워 일으킴이니, 이는 하늘의 지시이며 시대의 큰 추세이며, 전 인류 공동 생존권의 정당한 발동이기에, 천하의 어떤 힘이라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에 희생 되어, 역사 있는 지 몇 천년만에 처음으로 탄 민족의 압제에 뼈아픈 괴로움을 당한지 이미 10년을 지났으니, 그 동안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겨 잃은 것이 그 얼마이며, 정신상 발전에 장애를 받은 것이 그 얼마이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에 손상을 입은 것이 그 얼마이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운과 독창력으로써 세계 문화에 이바지하고 보탬 기회를 잃은 것이 그 얼마나 될 것이냐?

슬프다! 오래 전부터의 억울함을 떨쳐 버리면, 눈앞의 고통을 헤쳐 벗어나려면, 장애의 위험을 없애려면, 눌러 오그라들고 사그라져 갇혀진 민족의 장대한 마음과 국가의 체모와 도리를 떨치고 뻗치려면, 각자의 인격을 정당하게 발전시키려면, 가엾은 아들, 딸들에게 부끄러운 현실을 물려주지 아니하려면, 자자손손에게 영구하고 완전한 경사와 행복을 끌어대어 주려면, 가장 크고 급한 일이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니, 2천만의 사람마다 마음의 칼날을 품어 굳게 결심하고, 인류공동의 옳은 성품과 이 시대를 지배하는 양심이 정의라는 군사와 인도라는 무기으로써 도와주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나아가 취하매 어느 강자를 꺾지 못하며, 물러가서 일을 피함에 무슨 뜻인들 펴지 못하랴?

병자수호조약 이후 때때로 굳게 맺은 갖가지 약속을 배반하였다 하여 일본의 배신을 죄주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에서, 우리 옛 왕조대대로 닦아 물려온 업적을 식민지의 것으로 보고 문화민족인 우리를 야만족 같이 대우하며, 다만 정복자의 쾌감을 탐할 뿐이요, 우리의 오랜 사회기초와 뛰어난 민족의 성품을 무시한다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꾸짖으려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격려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겨를도 없다. 현 사태를 수습하여 아물리기에 급한 우리는 묵은 옛일을 응징하고 잘못을 가릴 겨를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오직 자기 건설이 있을 뿐이요, 그것은 결코 남을 파괴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써 자기의 새 운명을 개척함일 뿐이요,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적 감정으로써 남을 시새워 쫓고 물리치려는 것이 아니로다. 낡은 사상과 묵은 세력에 얽매어 있는 일본 정치가들의 공명에 희생된, 불합리하고 부자연에 빠진 이 어그러진 상태를 바로잡아 고쳐서, 자연스럽고 합리로운 올바르고 떳떳한, 큰 근본이 되는 길로 돌아오게 하고자 함이로다.

당초에 민족적 요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던 두 나라 합방이었으므로, 그 결과가 필경 위압으로 유지하려는 일시적 방편과 민족 차별의 불평 등과 거짓 꾸민 통계 숫자에 의하여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영원히 함께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구덩이를 더욱 깊게 만드는 오늘의 실정을 보라!

날래고 밝은 과단성으로 묵은 잘못을 고치고, 참된 이해와 동정에 그 기초를 둔 우호적인 새로운 판국을 타개하는 것이 피차간에 화를 쫓고 복을 불러들이는 빠른 길인 줄을 밝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또 원한과 분노에 쌓인 2천만 민족을 위력으

로 구하는 것은 다만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닐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서 동양의 안전과 위태함을 좌우하는 굴대인 4억만 중국 민족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두려움과 시새움을 갈수록 두텁게 하여, 그 결과로 동양의 온 판국이 함께 넘어져 망하는 비참한 운명을 가져 올 것이 분명하니, 오늘날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존과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붙들여 지탱하는 자의 중대한 책임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잊지 못할 괴로운 일본 침략의 공포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 평화로써 그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단계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 어찌 사소한 감정상의 문제이리요?

아!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도다,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왔도다. 과거 한 세기내 갈고 닦아 키우고 기른 인도적 정신이 이제 막 새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쏘아 비추기 시작하였도다. 새봄이 온 세계에 돌아와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는구나, 흑심한 추위가 사람의 숨을 막아 꼼짝 못하게 한 것이 저 지난 한 때의 형세라 하면, 참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에 원기와 혈맥을 떨쳐 펴는 것은 이 한때의 형세이니 천지의 돌아온 운수에 접하고 세계의 새로 바뀐 조류를 탄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으며, 아무 거리낄 것도 없도다.

우리의 본디부터 지녀온 권리를 지켜 온전히 하여 생명의 왕성한 번영을 실컷 누릴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천지에 순순하고 빛나는 민족문화를 맺게 할 것 이로다.

우리는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 도 다, 남녀노소 없이 어둡고 답답한 옛 보금자리로부터 활발히 일어나 삼라만상과 함께 기쁘고 유쾌한 부활을 이루어 내게 되도다, 먼 조상의 신령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새 형세가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고 있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앞길의 광명을 향하여 힘차게 곧장 나아갈 뿐이로다.

1. 공약3장1.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정의, 인도와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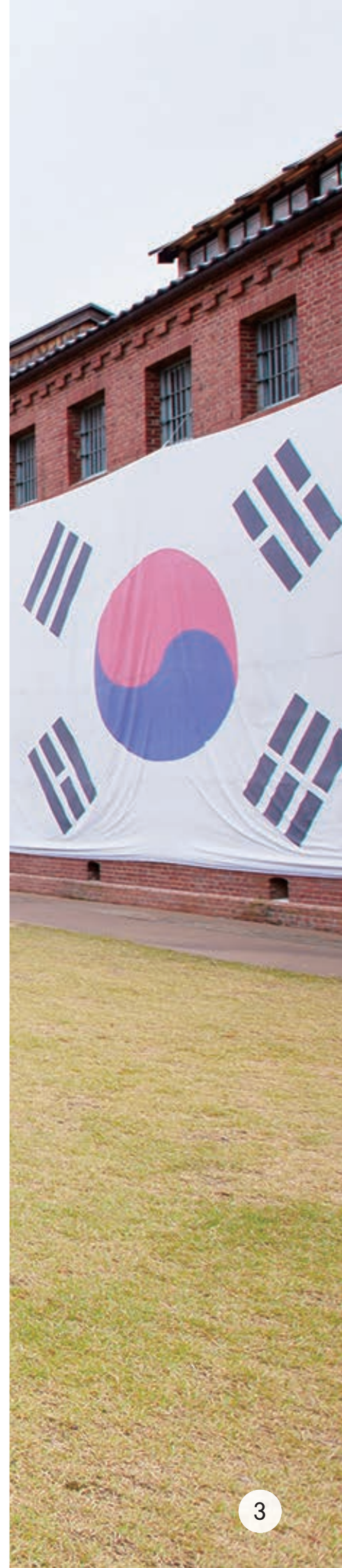
1.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하라.

1.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건국 4252년 3월 1일

조선민족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완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협, 양전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룡,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완, 신흥식, 신석규,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최 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



식 순

사회 : 최원길(평택3·1독립운동선양회 사무국장)

식전행사

- 행사 기록용 태극기 서명
- 길놀이 농악
- 평택3·1만세운동 재연극(퍼포먼스)

내빈소개

개회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순국선열 및 평택3·1독립만세운동 희생자를 위한 묵념

독립선언서 낭독

헌시 낭독

평택3·1만세운동 약사 보고

평택3·1독립운동선양회 설립 경과 보고

기념사

축 사

유족 대표 인사

삼일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평택3·1독립만세운동 행진 재연

기념사진 촬영

폐회

식순

기념사



회장 정수일
사단법인 평택3·1독립운동선양회

지금부터 99년 전인 조선건국 4252년 3월 9일, 바로 이곳,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계두봉 및 옥녀봉 일대에서 경기남부지역 최초의 대한독립만세가 울려 퍼졌습니다.

일제는 ‘안성의 원곡만세시위(4월 1일)’와 ‘수원의 장안면, 우정면 만세시위(4월 3일)’ 그리고 ‘평택의 평택역 앞 만세시위(4월 1일)’를 ‘가장 광포(狂暴)한 것’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일제가 ‘미쳐 날뛰듯이 매우 거칠고 사납다’고 기록한 경기중남부지역 독립만세운동은 그 해 3월 1일 서울 인사동 태화관과 탑골공원에서 울려 퍼졌던 독립선언서와 대한독립만세 제창 이 후, 약 한 달 후의 일입니다. 3월 1일의 독립만세 제창이 우리 한민족 전체의 얼을 울렸다면, 그로부터 8일 후인 3월 9일, 바로 이곳, 평택시 현덕면 계두봉 및 옥녀봉 일대에서 경기남부지역 최초로 있었던 대한독립만세 제창은 일제로부터 ‘광포’하다 일컬어질 만큼 격렬하고 끈질겼던 경기중남부지역 독립만세운동의 도화선이자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평택의 독립만세운동은 바로 이곳 현덕면 계두봉 및 옥녀봉 일대를 시작으로 4월 중순까지 평택 전 지역의 선열들에 의해 체계적이고 극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의 3·1독립만세운동은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칼을 앞세운 일제의 무자비한 학살 앞에서도 곳곳하게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우리 평택의 선열을 떠올렸을 때 그 후손으로서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선열의 흘린 피와 고결한 정신을 마음에 각인하고, 평택 3·1독립만세운동을 많은 이들과 후손들에게 알려 이를 기억케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2018년 3월 9일

평택3·1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사진 / 2012~2014



평택3.1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사진 / 2015~2017



유공자 현황 3·1 봉기도

평택시 3·1독립운동 유공자 현황

강한준 공재록 권익수 김만진 김봉희 김상완 김승선 김시연 김영상 김영오 김용성 김종국 김창섭
김하진 남상환 류영섭 목준상 박사원 박성백 박옥동 박용업 박인종 박정식 박호성 방풍삼 서병돈
서완득 신순우 신태호 심인택 심현섭 안구현 안옥만 안재홍 안종철 안충수 안희문 오성환 오창선
원심창 원제승 원준식 유동환 유만수 유한중 윤교영 윤기선 윤대선 윤주식 이경춘 이규선 이규창
이규태 이기석 이덕순 이도상 이두종 이명천 이민백 이병헌 이봉순 이사필 이상신 이승익 이약우
이양섭 이영서 이영우 이용희 이익중 이인수 이일영 이재록 이전용 이조현 이종만 이종필 이택화
이희성 전영록 정경순 정덕근 정수만 정우진 정우근 정세근 정호근 조창원 천선동 최광일 최구홍
최기원 최만화 최삼준 최선유 최수일 최웅진 최종화 최항진 한성수 한영수 한준택 홍기성 황순태

평택 3·1 만세운동 봉기도



※본 지도는 1919년 3·1운동 당시 진위군 지도임.
※고증 : 평택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지도 내 한자는 당시 지명이며, 지도 밖 일자 하단 표기는 현재 지명임
※2015년 3월 9일 평택3·1독립운동선양회 세움

삼일절 노래

삼일절 노래

The image displays the musical score for the Korean National Anthem, 'Gaeil' (Gaeguk). It is written on a single staff in treble clef with a common time signature (C). The melody is composed of eighth and quarter notes, with some measures containing rests. The lyrics are written in Korean Hanja and Hangeul below the staff. The score consists of eight lines of music, each with its corresponding lyrics underneath. The final line ends with a double bar line.

기 미 년 삼 월 일 일 정 오
터 지 자 밀 물 같 은 대 한 독 립 만 세
태 극 기 곳 곳 마 다 삼 천 만 이 하 나 로
이 날 은 우 리 의 의 요 생 명 이 요
교 훈 이 다 한 강 물 다 시 흐 르 고
백 두 산 높 았 다 선 열 하 이 나 라 를
보 소 서 동 포 야 이 날 을
길 이 빛 내 자

오늘을 사는 자 기억하리라

- 평택3·1만세운동 기념식에 부쳐 -

임 봄/시인·문학평론가
(평택시사신문 취재부장)

그것은 분노의 외침
평화를 갈구하던 흰 옷의 백성들이
태극기를 꺼내들고 들불처럼 일어나
조선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그것은

3월 9일 현덕면 계두봉과 옥녀봉에서 시작해
포승, 청북, 고덕, 서탄, 진위, 팽성, 평택 전역까지
무자비한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던
거대하고 거침없던 함성의 물결

가장 광포했던 만세시위로 기록된
자랑스러운 대한독립 만세운동의 뿌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어린 학생들까지
모두 거리로 나와 죽음으로 지키고자 했던
그것은 자유, 그것은 우리 대한의 완전한 평화
이곳에 발붙인 자, 어찌 그 피맺힌 함성을 기억하지 않으리
짓밟히고 죽어가면서도 끝내 목메어 외쳤던 만세소리와
그 피를 딛고 다시 태어난 내 고향 평택의 역사를

우리의 핏 속에 면면히 흐르는 저 뜨거운 햇불로
우리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었고
평화와 자유를 갈구하던 태극기의 외침으로
우리 다시 하나로 이어질 수 있었으니

이 땅에서 오늘을 사는 자 기억하리라
이 땅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떠올리는 자 기억하리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도도하게 흐르던
내 고향 평택의 살아있는 정신을...

평택3·1독립운동선양회 임원 현황

회 장 정 수 일 010-9090-2884

부 회 장 이 신 현 010-9084-1596

한 영 희 010-3705-9554

기획실장 공 병 인 010-6810-3462

감 사 인 효 환 010-5329-3382

이 근 중 010-7410-5980

사무국장 최 원 길 010-3318-1961

재무부장 이 중 한 010-7166-8194

조직부장 한 윤 수 010-5329-2116

홍보부장 홍 세 기 010-7274-2231

여성부장 김 명 숙 010-8758-7607

학술부장 성 주 현 010-3020-4893

김 해 규 010-7273-5173

박 성 복 010-9119-8886

연대부장 오 민 영 010-3763-1339

간 사 황 수 근 010-5104-1756

법무사 이언영 사무소



법무사 이 언 영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1176, 1층
(포승읍사무소 앞)

TEL. 031-683-2422

FAX. 031-683-2421

H.P 010-6383-4594

희곡

소신있는
대응과 행동으로
사회와 함께 성장하다



그린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번호 3619-294



공인중개사 최 원 길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 서9길5

Tel. 031-682-4100

H.P 010-3318-1961

E-mail wgreenbds@naver.com

一民蘭停

일민난정



대표 정수일

평택시 현덕면 기산2길 1-23

국세청 16년 근무
국립세무대학 12회 졸업



오명환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오명환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46-1 법률타워 401호
(평택법원, 검찰청 옆)

Tel. 031-618-3665 / Fax. 031-618-2085

H.P 010-2294-7261

E-mail 530osb@hanmail.net

평택3·1독립운동선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함평이씨 양산,대교공 종친회원 일동 -

이치안게수됩니다



평택3·1 독립운동선양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919년 평택3·9만세운동 주도자
최이래, 최혁래, 최정래, 최종환, 최우섭, 최경환, 최경섭의 후손
수성최씨 한림공파 권관종중 후손 一同





미래의 주인공이 될 도시, 평택

평택도시공사와 함께합니다.

평택으로 미래의 주인공이 될 기업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역할을 넘어 글로벌 경제의 핵심이 될 미래형 도시 평택이 여러분의 날개가 되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공사 '평택도시공사'가 있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육성

진위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LG전자(주) 등 기업들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황해경제자유구역 BIX조성공사(2공구)

서해안 성장벨트 구축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대학 및 연구시설 유치로 통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아파트 공급을 통한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도모

미래형 도시 평택에
날개를 달아주는
평택도시공사 CITY PLAN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서울과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연결하는
거점도시 육성



진위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LG전자(주)와 협력업체 및 관련업종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황해경제자유구역 BIX조성공사(2공구)

서해안 성장벨트 구축 및 평택시의 국제적
심재력 확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

잡종과 자연친화 아파트 공급(공공분양)을
통한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도모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식기반 산업단지 조성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산업단지 경쟁력 향상



농업인의 꿈을 소중히 여기는

안중농업협동조합



[안중농협 본점청사 조감도]

안중농협 종합시설 신축공사가 준공되면 금융사무소, 마트, 경제사업장, 농기계센터, 주유소가 한 곳에 위치한 종합타운이 형성됩니다.



[안중농협 본점청사 공사현황]



[위치도]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해양수산부
「바다가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판매하는
공익상품입니다.

바다야!
고맙다
Sh적금

바다사랑도 실천하고!
특별한 금리혜택도 함께 받으세요!

기본금리

2.2%

+

우대금리

0.9%

+

특별금지

0.6%

—

최고금리

3.7%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위한
약속

바다모래
채취금지

Sea & Love

당신의 적금에 바다사랑을 가득 담아주세요.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우리바다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경기남부수협

Sh 경기남부수협

대표번호 031) 220-7500

인터넷뱅킹 www.suhup-bank.com 고객센터 1588-1515 / 1644-1515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1. 사 업 명 :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3.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현덕면 도대리, 운정리, 화양리 일원
4. 사업면적 : 2,791,195㎡
5. 시행방식 : 환지방식(평가식)
6. 연 락 처 :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031)681-8972, 681-8977
FAX : 031)681-8997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최선철

아시아 쇼핑허브 평택 현대
ASIA SHOPPING HUB PYEONGTAEK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식회사



中國城
CHINACASTLE